

문제 1

1. “창조와 파괴에 대한 시각은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단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제시문 (가~다)에서 개인과 집단에 관한 서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잡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 “이에, 제시문 (가)는 창조와 파괴가 개인과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바라보았다. 필자는 창조와 파괴를 순환적이라고 보았다. 일례로, 세계는 고요하다가도 저항적으로 바뀌며 저항적이다가도 충만함의 상태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보았다는 점이 이를 나타낸다.” 개인과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셨는데 창조와 파괴가 순환한다 ->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떤 논리로 인해 순환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논리적 비약이네요.

3.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자본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자본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오래된 것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자본가가 능동적으로 창조와 파괴를 행한다는 점은 가)에서 필자가 주장한 창조와 파괴의 순환성과 확실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 하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꼭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제시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추측’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서술하신 대로 창조와 파괴는 순환 vs 창조와 파괴를 통해 발전 이렇게 보셔야 해요. 이게 제시문의 주제인걸요.

4. “제시문 (다)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은 제시문 (나)와 유사한 관점에서 창조와 파괴를 바라보았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기존의 계급체도를 파괴하려고 하며 부르주아 계급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해 이익을 창출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이 창조와 파괴를 이룬다는 점은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제시문 (다) 역시 제시문 (가)와 대조되는 관점임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3번 지적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fact’가 아닌 ‘추측’이네요. 추측성 논지는 높은 논리성의 글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 창조와 파괴에 대해서 (나)와 (다)는 모두 개인과 집단의 영향을 인정함과 동시에 창조와 파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를테면 제시문 (나)는 자본가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기존의 것을 파괴한다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제시문 (다)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관념의 ‘해체’만을 창조로 간주하였다. 즉 부르주아가 노동자를 이해타산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를 타파하려는 것은 일회적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런 비교로 인해 (나)와 (다)의 비교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체’는 창조가 아닌 파괴입니다. 파괴를 통해 새로운 관념을 ‘구성’하는 것이 창조이죠. 이 모든 과정이 창조와 파괴입니다.

5. 결론적으로 비교형식 또한 좋지 않으며, 기준도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답안을 작성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제시문 독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제 2

1. “제시된 (라)의 그래프는 모두 창조와 파괴에 있어서 개인의 영향력을 주목했다. 가계 소득의 증감이나 시간당 생산량 및 실질 임금은 순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류입니다. 개인의 영향력을 통해 표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며 잘못된 전제로 인해 모든 내용들에 대한 표 분석이 잘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하지 않겠으며 제시문 독해에 기반하여 리라이팅이 필요한 답안입니다.